



노건엽 연구위원, 이연지 연구원

##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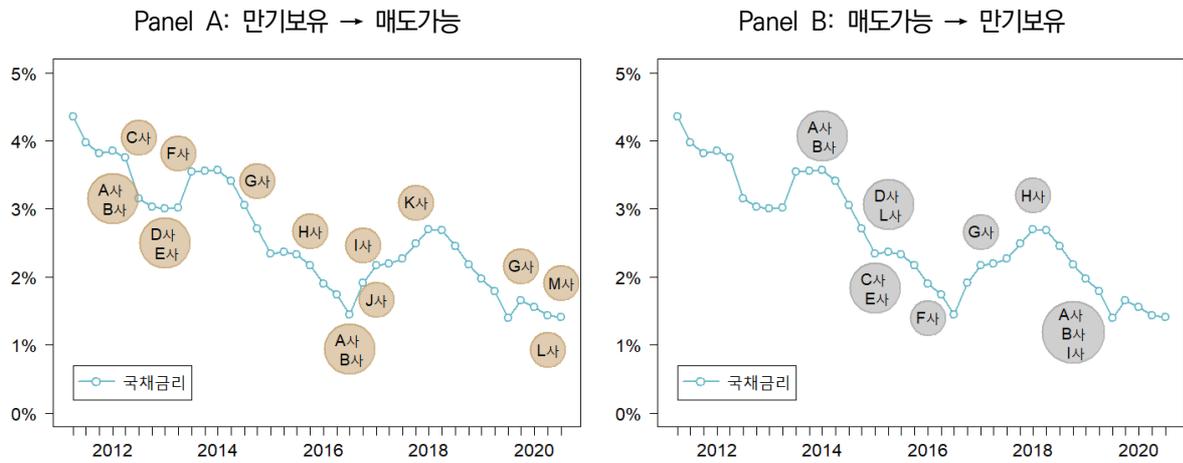
보험회사는 유상증자,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외에 채권 재분류를 통해 지급여력비율(RBC)을 관리할 수 있음. 최근 10년간 보험회사의 채권 재분류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사는 24개사 중 13개사가, 손해보험사는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15개사 중 6개사가 재분류를 하였음. 채권 재분류는 현행 제도에서만 유용한 방안이므로 이익의 내부 유보,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근본적인 자본 확충 방안이 요구됨

- 보험회사는 유상증자,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 방안뿐만 아니라 채권 재분류를 통해 지급여력비율(RBC)을 관리할 수 있음
  - 채권은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 가능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시장가치로 평가되어 금리 하락 시 채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증가로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함. 다만, 금리 상승 시는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본이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함<sup>1)</sup>
  -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면 금리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자본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
- 최근 10년간 보험회사의 채권 재분류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사는 24개사 중 13개사가, 손해보험사는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15개사 중 6개사가 재분류<sup>2)</sup>를 하였음
  - 2010년 말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생보 10개사, 손보 4개사는 2번 이상 재분류하였으며, 이 중 생보 3개사, 손보 2개사가 3번 이상 재분류함
- 생보사는 금리가 하락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8개사가 매도가능증권으로 채권을 재분류하였고 같은 기간에 다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여 금리 추세를 활용하는 회사가 있음(그림 1) 참조
  - 국고채 금리는 2018년부터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 시기에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한 회사들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 경험이 있는 회사임

1) 한국은행(2017. 6. 22, 2017. 12. 14), “금융안정보고서(2017년 6월, 2017년 12월)”; 예금보험공사(2018. 5. 29), “경영위험분석정보: '17년 손보사 경영위험 분석”은 금리 변화에 따른 RBC 비율을 분석함

2) 이수정 외 2인(2020), “금융자산의 재분류를 이용한 자본관리: H생명 사례”를 참고하여 분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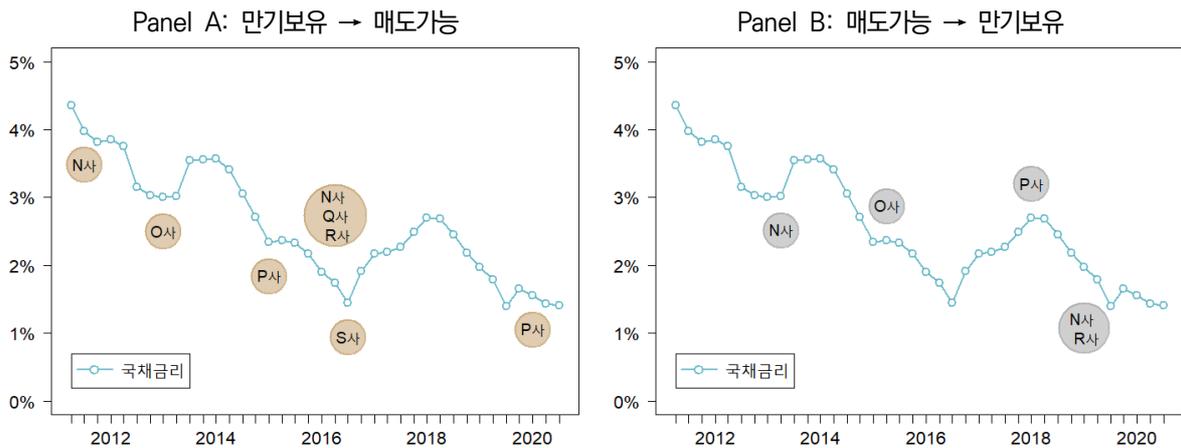
〈그림 1〉 채권 재분류 현황(생보사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;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- 손보사는 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2016년을 전후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가 집중되었고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한 회사들은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 경험이 있는 회사임(〈그림 2〉 참조)

〈그림 2〉 채권 재분류 현황(손보사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;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- 일부 보험회사를 통해 채권 재분류 현황과 RBC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, 재분류 후 RBC 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금리 변동에 의해 다시 RBC 비율이 하락하여 재분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줌
  - 「A사」는 2012년과 2014년의 채권 재분류로 인해 RBC 비율이 관리 되었으나 2016년 하반기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후 금리가 상승하여 RBC 비율이 하락함

- 「B사」는 2012년부터 4회에 걸쳐 재분류를 하였으며, 2016년 및 2019년에 시행한 재분류 후 오히려 RBC 비율이 하락하여 금리 변화에 따른 RBC 비율 변동성이 증가함

〈그림 3〉 RBC 비율 변화와 채권 재분류



자료: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; 각사 사업보고서

- 보험회사 중 상당수가 채권 재분류를 하고 있으며 이 중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한 회사들은 대부분 매도가능 증권 재분류를 경험한 회사로 채권 재분류를 RBC 비율 관리에 활용하고 있음
  -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 후 일시적으로는 RBC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인한 RBC 비율의 하락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다시 재분류하는 방법으로 대처함
- 채권 재분류는 현행 제도에서만 유용한 방법이므로 새로운 제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이익의 내부 유보,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근본적인 자본 확충 방안이 요구됨
  - 새로 도입될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(K-ICS)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므로 채권 재분류에 의해 지급여력 비율이 변화하지 않음
  - 조건부 자본증권은 일정 조건하에서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는 채권으로 손실 흡수에 활용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활용하기 위한 발행 근거가 필요하므로 제도 개선이 요구됨